

대중이해의 길과 문화운동

이영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공연을 보고 나올 때 가끔 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다. “작품 어때요?”, “좋은 작품이에요?” 그 공연을 나만 본 게 아니고 그들도 멀쩡하게 함께 보았는데도, 그들은 연극평론가·대중예술평론가란 직함을 달고 있는 내 눈치를 보며 솔직한 소감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데까지,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위치와 맥락에 대해 대강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작품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보는 법? 있기는 하죠. 하지만 뭐, 그거 모르면 못 보나요? 옛장수 맘 대로 보면 돼지.”

그들을 위로하려고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작품의 주인은 창작자가 아니라 수용자라고 말이다. 수용자가 없는 예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예술은 그 사회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수용자가 많을수록 좋은 작품이라는 건 아니다. 수용자가 많은 대중적인 작품도 있고, 아주 소수의 수용자를 위해, 혹은 미래의 수용자를 위해 존재하는 예술 작품도 있다. 마치 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혹은 당대 사람들에게 모두 외면 받으나 나중에야 독자를 찾게 되는) 학술서적도 충분히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소수의 수용자를 위한 작품은, 수용자의 수가 적은 만큼 심화된 질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예술이란 단어에서 이상스러운 권위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나라 문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천재적 영감으로 만들어내는 예술', '훈련 받은 사람들만 이해하는 예술'이라는 예술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런 예술관을 교육받았다. 아마 나도 대학 때 운동권 언저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졸업 후 문화운동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예술관을 교정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을 것이다.

하도 오래 전 일이라서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예술관 변화의 시작은 아주 막연하고 관념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역사 발전의 주인은 민중이다, 그러므로 예술 발전의 주인도 민중이다'와 같은 식의 당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노래운동·연극운동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당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술의 주인은 창작자가 아니라 수용자 대중이구나 하는 점을 실감했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할 뿐, 그래서 나 같은 전문인을 보고 자꾸 주눅든 표정을 지을 뿐이지, 결국 자기가 싫은 작품은 절대로 억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예술은 수용자 대중이 호응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어려운 예술로 '폼 잡지 않는' 대중예술이나 민중예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983, 84년 즈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에서 '노래운동'이란 것을 해보겠다고 노래모임 '새벽'에 모인 우리들은 거의 천둥벌거숭이들이었다. 대학 때 진보적인 노래에 눈뜬 이후 이런 민중가요가 소수의 대학생만이 아닌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불려져야 한다는 당위적인 민중지향성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놀라웠던 것은, 대학생 출신인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노동자와

농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심지어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노래한(그래서 우리를 매우 감동시킨) 노래들, 예컨대 돌이 지은 「갈 수 없는 고향」이라든가, 김민기가 지은 「강변에서」, 「서울로 가는 길」, 안혜경이 지은 「까치길」 같은 노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노래는 아주 차분하거나 구슬픈 노래들이었는데, 이런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치면 일단 잘 따라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따라하면서도 재미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을 관중으로 두고 하는 공연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관중석 분위기는 전혀 집중되지 않았다.

그들이 사회의식이 담긴 노래를 기피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노동자와 농민들이란, 이미 진보적인 단체에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공감했다. 하지만 이런 노래는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유를 물어보아도 해답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언가를 논리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들은 언어적 사유로 밥먹고사는 지식인들도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꽤 오랫동안 끙끙거렸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축축 처지는 슬픈 노래로 부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을 비현실적으로 즐겁게 그린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사노라면」이나 「불나비」처럼 신나는 노래였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질감이 우리 대학출신자들의 느낌과는 좀 다른 것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와 농민이 아니

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들이 느끼는 것보다 좀더 고통스럽고 슬프게 그리고 싫어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 연민의 시선이 들어있었고, 이런 연민주의적 시선이야말로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동정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들이었다. 좀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 대학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양심에 따라 가난한 그들의 처지를 동정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들을 동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와 꼭 같은 역사변혁의 주체로 여기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동정하는 자와 동정받는 자는 결코 동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은, 바로 이 섬세한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중지향성이 얼마나 머리에 국한된 관념적인 것이었던가,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그들을 우리의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자신이 좋고 싫은 것을 명확하게 반응하는 수용자는 노래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주로 야외에서 벌어지는 마당극은 공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패가 명확히 판가름났다.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이나 집회장에서 공연된 노동연극은, 관중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만들어낸 공연일 때에는 그 호응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공연이 끝난 후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파업 노동자들이 배우들에게 달려와 꼬깃꼬깃한 천 원 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고마워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객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졌다. 이를 여러 해 겪은 후 우리는, 새 연극이나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정세가 어떠한지, 올해에는 어떤 문제가 닥칠지, 수용자 대중들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다. 이제 정말 수용자 대중이 얼마나 무서운 주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겪은 경험은 나의 예술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수용자 대중의 명확한 반응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의 대중만이 아니었다. 그저 광고와 언론에 돌아나는 듯 보이는 대중문화의 수용자 대중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마찬가지인 것이다. 대중은 그저 전문인이 계몽하고 이끌면 따라오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광고에 현혹되기도 하고 대중조작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며 선택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들은 계몽으로 움직여낼 대상이 아니라, 대중조작이든 광고이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그 느낌이 거짓일지라도) 그런 방법으로만 움직여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읽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중들의 생각과 느낌이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늘 그들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제대로 납득할 만큼 설명해내는 것, 나는 예술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 문화운동을 하면서 찾기 시작한 이 길은 아직도 멀다. ■

이영미 ymllee@knu.ac.kr | 연극평론가, 대중예술평론가. 1961년 서울 생.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저서로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노래이야기주머니』, 『재미있는 연극길라잡이』 등이 있다.